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21>

조주 스님이 대중에게 설법했다. "내가 이곳에서 가르치는 불법은 말하기는 어려우나 쉽고, 말하기는 쉬우나 어렵다. 다른 곳은 보기는 어려워도 알기는 쉽지만 나의 가르침은 보기는 쉬워도 알기는 어렵다. 만일 알 수만 있다면 천하를 횡행할 수 있을 것이다."

師示衆云 此間佛法 道難即易 道易即難 別處難見 易識 老僧者 難即易見 難識 若能會得 天下橫行

조주 스님의 회상뿐만 아니라 진정한 선사가 있는 곳에서 가르치는 불법은 때로는 쉽지만 때로는 어렵다. 여기서 본다는 말은 자성(自性)을 보는 것을 말하는데 즉, 견성(見性)이다. 제대로 된 선지식을 만나면 견성하기는 쉬운 법이다. 그러나 본 것을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 어렵다. 그래서 불법을 말하기는 어려워도 쉬운 것이고, 혹은 말하기 쉽다 해도 그것을 확실히 알기는 어렵다. 그래서 조주 스님은 늘 "내 법은 보기는 쉬워도 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견성도 하고 또한 자성에 대한 견해도 확실히 얻었다면 천하에 그 누구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 견성은 쉽다. 그러나 확신을 얻기는 힘들고, 또 견성한 것을 남들에게 알리기도 어려운 법이다. 그런데 만일 견성과 동시에 말문까지 트었다면 불법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홀연히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고 물었을 때 만일 조주에서 왔다고 한다면 조주를 비방한 것이 되고 만다.

만일 '조주에서 오지 않았다' 해도 또한 자기를 잃어버린 것이 된다. 자, 여러분이라면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학승이 물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비방하는 것이 된다면 화상께서는 어떻게 비방하지 않으시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만일 비방하지 않고 이른다해도 벌써 비방한 것이다."

忽有人問 什麼處來 若向伊道 從趙州來 又謗趙州 若道不從趙州來 又埋沒自己 諸人且作麼生對他 僧問 觸目是謗 和尚如何得不謗去 師云 若道不謗 早是謗了也

이 대답도 <금강경>의 사상과 일치하는 내용이 다. 만일 불법을 불비이라 하고 또 부처가 설한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부처를 비방한 것이다.

무엇이 바른 수행인가?

선(禪)을 닦는 자들도 마찬가지로이다. 조주의 제자가 돼서 조주가 있다하고 조주가 설한 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스승을 모독하는 것이 되고 만다.

그렇다고 조주의 제자가 돼서 조주 스님의 제자라 밝히지 못하고 조주의 선법을 말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출신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만다. 이때를 당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조주 스님은 설사 비방하지 않고 이른다 해도 이미 비방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천하의 남자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여기서는 단숨에 우주를 박차고 벗어나는 장부의 기개가 필요할 뿐이다.

학승이 물었다. "바른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수행해야함을 알면 된 거야. 만일 수행해야함을 알지 못한다면 갖가지 인과 속에 떨어질 거야."

問 如何是正修行路 師云 亥修行即得 若不修行 即參差落他因果裡

무엇이 바른 수행인가? 다만 수행이 필요함을

又云 我教你道 若有問時 但向伊道 趙州來 忽問趙州 說什麼法 但向伊道 寒即言寒 熱即言熱 若更問道 不問者 簡事 但云 問什麼事 若再問趙州 說什麼法 便向伊道 和尚來時 不交傳語 上座若要知趙州事 但自去問取

조주 스님의 법은 별 달리 어려운 것도 없고 어떤 깊은 단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조주 스님은 다만 '추우면 춥다하고 더우면 덥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주 스님 스스로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말할 뿐 특별한 법은 없다는 뜻이다.

조주 스님은 정도를 걷어가는 사람이다. 정도를 걷는 사람은 항상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이다. 공연히 각종 미사여구나 온갖 사상을 들이대면서 진리를 치장하거나 어렵게 포장하지 않는다. 도는 어렵지 않다. 도를 실천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도를 말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도를 아는 것도 어렵지 않다. 추우면 춥다하고 더우면 덥다 하면 된다. 사람들이 도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도의 실체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학승이 물었다. "앞뒤를 돌아보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앞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뇌우고, 그대는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問 不顧前後時如何 師云 不顧前後且置 你問何誰

불법은 때로는 쉽고 때로는 어렵다

차별을 인정한 속에서 평등심을 가져라

알면 된 것이다. 불자라면 수행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수행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 마음은 오랫동안 탐진치 삼독이 한 겹 한 겹 달라붙어 억척만 겹의 집착 덩어리로 습관화된 상태이다. 때문에 자기를 비우는 수행을 하지 않고 어느 한 순간 마음이 깨끗해지길 바라는 것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과 같다.

또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내가 자네들에게 할 말을 가르쳐주겠다. 만일 어떤 사람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 '조주에서 왔다'라고. 만일 '조주는 어떤 법을 설하는가'하고 물으면 다만 이르라. '추우면 춥다하고 더우면 덥다 한다'라고. 만일 다시 이르기를 '그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야' 하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무엇을 묻는 것입니까?' 하고 반문하라. 만약 제자 '조주는 어떤 법을 설하고 있는가?' 라고 물으면 곧 대답하라. '제가 올 때 노스님께서는 별 말이 없었습니다. 상좌께서 만약 조주의 일을 알고 싶으면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라고."

이 문답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혹 도(道)를 닦는 사람이 어디서 도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는 도는 고하가 없고 형체가 없으며 전후도 없다고 생각해 막행막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도의 근원으로 돌아가 말한다면 지위고하가 없고 형체 또한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실의 세계는 도가 근원에서 흘러나와 갖가지 차별을 이룬 세계이다. 그러므로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갖가지 차별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차별을 인정한 속에서 평등심을 가져야 한다.

조주 스님은 전후가 없다는 것에 대한 자세한 의미는 나중에 따지고 너는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물으므로 써 명백한 차별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즉, 너는 전후가 없다하지만 현실에서 어찌 없을 수 있겠느냐. 당장 내가 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분명 묻는 자와 대답하는 자가 따로 있지 않느냐? 라는 의미의 반문성 가르침이다. 남자들이 새겨들어야할 대답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규 교수의 선어록 해제 ③ 이입사행론

선의 역사 달마에서 시작

오늘날 전승돼 온 중국선은 보리달마로부터 시작됐다. 달마의 전기와 사상은 다분히 신비적이고 초인격적인 모습까지 가미됐다. 그것이 어느 정도 학문적인 성과와 더불어 달마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로서 등장한 것은 20세기 초에 돈황본 문헌의 발견과 더불어 시작됐다. 그만큼 돈황본 선문헌의 가치는 크다. 그 가운데 <이입사행론(二入四行論)>은 달마의 말씀을 전해주는 최고(最古)의 문헌이다. 이로 부터 선의 역사와 사상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입사행론>의 일부분은 이전부터 알려져 왔다. 곧 <속고승전>의 보리달마의 전기, <경적전등록>의 '보리달마약변대승입도사행명제자담림서(菩提達磨略辨大乘入道四行并弟子曇林序)', 대정신수대장경에 수록돼 있는 <少室六門> 가운데 '이중입(二種入)', 범어사에서 개편된 <선문촬요(禪門撮要)> 가운데 '보리달마사행론' 등이 그것이다.

일찍이 <이입사행론>의 자료적인 가치를 인식한 사람은 스즈키 다이세츠 박사의 <소실일서(少室逸書)>(1935) 및 <교간소실일서급해설(校刊少室逸書及解說)>(1936)이었다. 여기에는 <소실유문> 가운데 '안심법문(安心法門)' 및 <종경록(宗鏡錄)> 권99에 수록돼 있는 단편적인 장선사(藏善師), 연선사(緣善師), 안선사(安善師) 등의 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후 달마의 어록에 대한 해석과 현대적인 해설서로는 야나기다 세이잔 교수의 <달마의 어록>(1996) 및 <다루마>(1998)가 널리 보급돼 있다.

<이입사행론>의 서두에는 제자 담림이 쓴 서문이 수록돼 있다. 여기에서 담림은 달마의 출신 지역 및 신분 그리고 중국에서 겪은 상황을 간략하게 서술한다. 보리달마가 바다를 건너 중국에 왔을 당시, 중국의 사회현실은 대단히 복잡한 남북조시대였다. 특히 달마의 선사상에 대해서는 여시안심(如是安心)하고 여시발행(如是發行)하며 여시순물(如是順物)하고 여시방편(如是方便)하는 사어시(四如是)로 요약했다. 곧 여법하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여법하게 사행(四行)을 실천하며, 여법하게 중생을 대하고, 여법하게 공부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대승안심의 가르침이니 이로써 사람들을 잘못되지 않게 가르치고 인도하라는 것이었다.

첫째의 여시안심(如是安心)은 안심법문(安心法門)으로 잘 알려진 가르침이다. 달마와 헤가 사이에서 등장한 이 문답은 후대 선문답의 원형(原型)이 됐다. 달마의 가르침에서 이것은 이입(二入)으로 나타나 있다. 곧 대저 불도를 깨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요약하면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진리에 합치해 깨치는 방법(理入)이고, 둘은 깨친 불도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行入)이다.

둘째의 여시발행(如是發行)은 사행(四行)을 실천하는 것이다. 매사에 분명하고 명쾌한 판단을 내려 외곡됨이 없이 지속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곧 여법한 발심이기도 하다. 스스로 발심한 것을 마음과 입과 몸의 행동으로 여법하게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달마의 가르침 가운데 사행(四行)으로 나타나 있다. 불도를 실천하는 것은 네 가지의 실천으로서 외적인 실천은 모두 이 수행에 포함된다. 하나는 전세의 원한에 대한 실천이고, 둘은 인연에 따르는 실천이며, 셋은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 실천이다. 넷은 법의 본성에 결합된 실천이다.

셋째의 여시순물(如是順物)은 자신이 갖는 살고 있는 세속의 관습을 존중하고 인연에 따르는 것이다. 곧 상대방의 문화와 성격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선에는 이류중행(異類中行)이라는 말이 있다.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려면



법화선원 법공 스님의 달마도

것에 스스로 그들 중생의 입장에서 행위하면서 동화하고 교화하는 화광동진(和光同塵)을 말한다.

넷째의 여시방편(如是方便)은 섬세하고 온갖 마음을 기울여 정성을 다하는 공부로서 유연한 마음을 말한다. 모든 일에는 방법이 있고 전법이 있으며 사람이 있고 목표가 있다. 그것을 스스로 존중하면서 경우에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구사해 효과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서 선교방편을 사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깊이 스승의 말을 믿고 스승의 가르침을 수용하며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고 상황을 잘 파악해 대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어시(四如是)의 가르침은 달마법문의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달마는 스스로의 경험에서 우러나는 가르침을 몸소 그와 같은 네 가지 방법으로 제자에게 전해준 것이다. 달마는 이국의 승려로서 많은 오해와 질투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대치가 아닌 포용과 순응으로 극복했다. 이 이입과 사행은 <금강삼매경(金剛三昧經)>의 입실제품(入實際品)의 내용과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달마와 <금강삼매경>의 관련에 대해 다양한 학설이 등장했다.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비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시기는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알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나가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동동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축적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져나가는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서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우란분절(백중) 지장경 산림법회 및 자비도량 참법기도

지옥중생이 남아 있는 한 성불하지 않겠다고 원을 세운 지장보살님과 시왕(명부)을 모신 지장기도영험도량에서 **천도제 · 산림법회**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 **법사** : 석 혜승 스님 (전, 해인사 율원장)
- ◆ **일시** : 불기 2554년 5월 25일 (양, 7월 6일) ~ 7월 15일 (양, 8월 24일)
- ◆ **조상, 태아령 영가 천도 자비도량 참법 기도** - 오전 10시
- ◆ **지장경 산림법회** - 오후 2시

금강경으로 장엄한 법당, 시왕(명부)을 모신 지장기도 영험도량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중리 1077-6번지

수정사 성천 합장
052)225-0068, 0177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75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식,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향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8월 19일까지

◆ 개강일시 : 2010년 8월 20일 매주 (금)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합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전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